

케펜이오름의 지명해독은 '골른골오리'에 단서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65>

3부 오름 (124) 물오름과 케펜이오름

같은 곳에 케펜이오름 4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성판악지소 바로 동쪽 516도로변 오름이 물오름이다. 표고 838.6m, 자체높이 114m다. 남동쪽으로 말굽형 화구가 가파른 비탈을 이룬다. 1996년 제주도가 발행한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에는 물오름을 대표지명으로 하고, 괴팽이, 수악(水岳)을 병기했다. 1995년 오름나그네라는 책에도 물오름이라 했다. 헛갈리는 것은 여기서 북동쪽으로 1.5km 지점에 세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있는데 2023년 발행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의 오름지도'에는 큰케펜이(792.1m), 셋케펜이(757m), 셋괴펜이(774m)라 표기된 점이다. 1995년 '오름나그네', 1996년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에도 나온다. 그러므로 이 일대에 같은 지명 오름이 4개가 있는 셈이다.



한라산 주봉 바로 앞에서 성판악. 정면 마은이와 그 뒤쪽으로 정상에 건축물이 보이는 것이 물오름. 오른쪽으로 케펜이오름이 보인다.



물오름. 정상에 제주항공무선표지소 시설이 보이고, 분화구가 골짜기를 형성한다.



마은이 혹은 마흐니로 불리는 오름과 그 뒤로 물오름이 보인다.

김찬수

물오름은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2023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작한 '제주의 오름지도'에도 물오름이라 돼 있다. 1703년 탐라순력도에 '고편악(孤片岳)'이라고 한 이래 '고편리악(古片里岳)', '고편악(高片岳)', '고편리악(高便尼岳)', '괴편이오름', '묘악(猫岳)' 등으로 표기됐다. 지역에서는 케페니오름, 케펜이오름, 화발악(花發岳)으로 채록됐다는 자료도 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물오름'을 포함한 케페니오름, 케펜이오름, 괴편이오름 등 고유 지명과 고편악(孤片岳), 고편리악(古片里岳), 고편악(高片岳), 고편리악(高便尼岳), 묘악(猫岳) 등 한자표기 지명이 검색된다. 이 한자 표기 지명들은 모두 특별한 뜻을 반영했다기보단, 현지에서 부르는 발음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묘악(猫岳)이라는 표기는 괴편이오름의 '괴'를 훈가자로 썼다.

고유어는 한자어로, 한자어는 고유어로

케펜이오름, 케펜이오름, 괴편이오름 등의 뜻에 대해서 '케', '괴' 등은 '바위굴'을 뜻하는 제주어, '펜'은 표준어 '펜', 즉 '쪽'이라거나 굴이 펜(파인) 오름이라는 데서 붙은 지명이라고 설명한 예가 있다. 그렇다면 이 오름에 바위굴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다. 다만 오름나그네라는 책에는 큰케펜이오름(792.1m, 괴편이오름의 주봉으로 표현)에 높이 약 5m, 길이 45m의 굴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큰 규모의 동굴을 케라고 하지는 않는다. 화발악(花發岳)이라고 하는 기록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케펜이'를 '꽃핀이' 즉, '꽃핀이'로 인식하고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케펜이' 혹은 '케펜이'의 해독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 1965년 우락기의 제주도라는 책에는 '고룡병악(高龍並岳)'이라는 오름이 나온다. 등고선은 800m로서 물오름(우락기의 제주도에는 괴편이(猫岳)로 표기)과 같으나 산의 높이는 물오름이 868m인데 비해 이 오름은 825m로 43m 낮은 것

으로 기록했다. 오늘날의 지도에 따르면 물오름(괴팽이) 839.1m, 괴편이오름(孤片岳)은 792.1m로서 47m의 차이가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고룡병악이란 오늘날의 케펜이오름(孤片岳)을 지시한다. 즉, 물오름을 괴편이오름(猫岳), 케펜이오름(孤片岳)을 고룡병악으로 표기한 것이다.

고룡병악은 '높을 고(高)'에 '룡(龍)'을 더했는데 이는 '룡'의 어두 발음 '르'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그러면 '고'+ '룡'은 '굴'이 된다. 다음에 나오는 '병(甁)'이란 '고르다'의 뜻을 가진 한자로서 제주어에서는 '고르다'를 '골르다'로 발음하므로 '굴'을 나타내려고 동원한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골르다'란 '위가 평평해 고르다'의 뜻으로 쓴 것이다. '악(岳)'은 '오름'의 자음으로 오름의 제주어 '올(오리)'을 표현하려고 쓴 글자다. 따라서 고룡병악이란 '골른골오리'다. 제주어에서 병을 '팽', 병굽을 '팽굽', 병풍을 '팽풍'이라 한다. 그러므로 고룡병악의 '병악'은 '팽악'이라 했을 것이다. '굴'은

'르'가 탈락하면 '마'가 된다. '굴'이란 '골짜기가 있는'의 뜻이다. '카팽악', '괴펜악', '괴편악', '괴페니오름', '케펜이오름', '괴편이오름' 등은 이렇게 발생한 지명들이다. 고유어가 한자로, 한자가 고유어로 바뀌는 과정이다. 물오름이라는 지명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오름이 위가 평평해 '마르오름'이라고 불렸음을 의미한다. 물오름의 정상에는 제주항공무선표지소가 있다. 정상부가 넓고 평평하다. 이 오름은 위가 평평하고 골짜기가 두드러진다.

'마흐니', 위가 평평한 '마르'

이 오름 근처에 '마은이' 혹은 '마흐니'라고 부르는 오름이 있다. 표고 552m다. 제주의 오름지도에는 마은이를 대표지명으로 하고 마흐니를 병기했다. 1709년 탐라지도와 177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마흔지(夕欣旨)'라는 표기가 나온다. 이후 '두한봉(斗漢

峯)', '사한니악(沙閑尼岳)', '마하니오름', '마하악(馬下岳)'으로 나온다. '마은이'라는 지명으로도 부른다.

'마흔지(夕欣旨)'란 '마흔마르'다. '두한봉(斗漢峯)'의 두(斗)는 '말 두'자이므로 마한봉을 표기한 지명이다. 사한니악(沙閑尼岳)의 사(沙)는 '모래 사'이므로 모래의 제주어 '몰레'로서 '말(말)'을 표기하려고 동원했다. 마하니오름과 마하악(馬下岳) 역시 '마'로 시작한다. 이 지명들은 하나같이 '마'가 들어 있다. 이것은 이 오름을 '마르'로 불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저 단순히 '마르'라고 부르던 것이 축약과 연상 과정을 거치면서 '마은이', '마흐니' 등의 변화를 거친 것이다. 이것이 한자로 표기되면서 다양한 형태가 나왔다. 위가 평평한 '마'오름이란 뜻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왕방울 은행나무 성목 판매 (200본)

- 공원 조성용(열매 범새 없음)
- 수령(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음)
- 재래종 보다 열매는 2배 큼
- 개량종(부채꼴, 대접꼴, 밥통꼴)

문의 : 010-4693-1698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일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르'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